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충현의 청년들로

크신 은혜로 시작한 5부 젊은이예배

청년·대학생들이 모였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몇몇 어른들을 포함하여 1천 5백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동안 새벽마다, 금요기도회마다 젊은이들을 위해 사랑의 간구를 뿜어낸 성도들의 기도, 젊은이들의 순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지난 주일 오후 3시, 2시 40분 경부터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여 3시 정각이 되자 약 1천 2백여명 가량이 함께 자리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예배가 시작되고서 10여분 내로 모두 자리를 잡았다. 사회는 청년1부를 지도하는 김동석 목사가, 기도는 부장인 김천재 장로가 담당했다. 김장로는 기도를 통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이 세대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옷을 입는 청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5부예배를 통해서 '새벽이슬 같은 모든 충현의 젊은 세대들이 치료받고 깨끗해져서 민족복음화와 복음으로 하나된 통일조국을 위해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다.

김성관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전, 기도를 통해 한국전쟁때 없어질 뻔 했던 이 나라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간구를 드렸다. 이어서는 에스라 3:8-13을 통해 '사모하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는 기쁨이



▲ 지난 주일 시작한 젊은이를 대상으로한 5부예배의 모습

충만한 가운데 진실된 예배자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처럼, 우리 충현의 젊은이들도 '깨끗하고 꾸밈없는 젊은이답게 진실되고 가치있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졌다.

이 날 찬양을 맡은 고등부찬양대는 자체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올은 길 따르라'를 찬양했다. 앞으로 청년·대학생 중심의 찬양대가 서기까지는 당분간 고등부찬양대가 5부예배를 섬기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헌금순서는 30여명의 청년·대학생들이

담당했는데, 예배 참석인원이 예상보다 많았던 관계로 급히 봉사위원들이 헌금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제 첫 5부예배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충현의 젊은이들이 예수께 집중하는 깨끗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그리고 바른 말씀 바른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 이를 통해 그들이 충현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로, 선교의 주역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성실한 기도와 마음 다한 사랑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9월5일부터

금요일집회 오후7시30분에
구역예배도 다시 시작

교회는 오는 9월5일 금요일집회부터 집회 시간을 현행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끝나는 시간도 오후 9시 30분경으로 당겨진다.

이는 오후 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10시에 마쳐 집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늦은 귀가로 인한 어려움(다음날 새벽기도회 참석, 출근 등)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그동안 더위 및 휴가 등으로 8월 한달동안 쉬었던 구역예배가 9월 첫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권사회 수련회 열려

9월 1, 2일 갈릴리홀에서

장사에 김성관 목사, 이종대 목사

권사수련회가 9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2일(화) 오후 3시 30분까지 갈릴리홀에서 열린다.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권사들이기에 여름행사 동안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이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엡 5:17)는 주 제하에 모이는 권사수련회는 김성관 목사와 이종대 목사가 각각 강의를 맡는다. 말씀을 듣는 시간외에도 성경암송대회, 찬송가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권사수련회는 교회 내외에서 많은 봉사와 기도로 애쓰는 권사들이 모여 서로간에 교제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

97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97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34명에게 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2학기 장학금은 1학기 수혜자 중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수여하게 된다.

지난 주일 주간충현에 게재된 2학기 장학금 수혜자들은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97년도 전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 기간: 8월 31일까지
- 시간: 10:00 ~ 14:00, 15:00 ~ 16:00
- 장소: 선교관 404호
- 대상: 당회 산하 각 위원회 및 소속 기관
- 준비물: ① 원장 ② 증명서류 ③ 통장 ④ 시산표 ⑤ 금전출납부
- 문의: 감사위원회실 (교관 354)

● 아직까지 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는 오늘중으로 꼭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는 9월 7일(9월 첫주일) 교회설립 44주년을 맞으며 교회설립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모차르트의 '신앙고백'을 연주한다.

9월 7일 주일 저녁찬양예배 시간에 행해질 이 연주는 합창에 아멘찬양대(대장 이하영 장로, 지휘 이수철, 반주 김남욱)가 담당하고 충현오케스트라가 협연하게 된다.

교회설립 44주년기념 찬양의 밤

신앙고백

CREDO MASS in C, K. 257 / Mozart

곡중 독창에는 소프라노 김은경, 알토 박연숙, 테너 차문수, 베이스 강임구가 담당하게 된다. 이런 특별한 찬양시간을 통하여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므로, 이 특별한 기회가 진정한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열심으로 준비하는 아멘찬양대와 충현오케스트라를 위하여 사랑어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자.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무익하게 된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2)

(이사야 5:13-23)

지난 주 설교에 이어 일곱가지로 설명하는 들포도 열매 ① 들포도 열매는 지나친 욕심의 죄입니다 ② 들포도 열매는 방탕한 죄입니다.

③ 들포도 열매는 무지한 죄입니다 (13-17절).

무지한 죄는 마침내 심판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무엇을 모르는 것이 죄인가를 생각하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죄값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양빛 아래서 자란 곡식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이 죄 중에 첫째입니다. 또한 섭리의 하나님은 심장을 뛰게 하시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만 알면 들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이 들포도를 맺다가 필경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풀과 같고(사 40:6), 안개와 같으며(약 4:14) 풀끝에 달린 이슬처럼 떨어집니다(호 13:3). 이것을 모르고 만년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처럼 거만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면 들포도를 맺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인간에 불과한데도 하나님보다 높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홍수의 위력 앞에 구더기란 놈이 분수를 모르듯이 인간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며 덤비다가는 들포도를 맺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부모에게 불효하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깨끗한 것을 먹이고 바로 교육시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 먹이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줄로 알고 도적질을 하여서까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인다면 이것은 독약을 먹여 자식의 영혼을 죽이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못해도 너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의 책임을 하지 않고 노는 데만 눈이 어둡고 스승이 스승의 책임을 생각지 않고 돈벌이에만 눈이 어둡고 위정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하지 않고 권세욕에만 눈이 어둡고 국민이 국민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면 결국은 들포도를

맺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값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는데 이것을 모르고 도적질을 해서라도 돈만 생기면 이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자들은 첫째, 전쟁이 나면 싸움에 저서 포로로 잡혀 가게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평안한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했으니 싸움에 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 가게 됩니다.

둘째, 주리게 됩니다. 음식이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르고 낭비하던 부자들에게 굶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귀한 자들이 백성의 것을 너무 많이 거두어 들여 었는 것이 없도록 쌓아 놓았으니 음식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굶어 죽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건만 귀한 자들의 집에는 쌀도 많고 떡도 많고 보통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의 귀함을 모르고 천대했었으나 네게도 먹을 것이 귀한 줄을 아는 날이 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식 귀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버리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셋째, 목마르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흉년이 들도록 비가 오지 않겠다는 뜻이며 또한 영적으로는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여 심령이 갈갈함을 면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암 8:11). 그래서 백성은 항상 육신의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가슴에 지옥불이 불어 답답합니다. 시원한 일들을 볼 수가 없고 갈갈하고 안타깝기만 하다는 말입니다.

넷째,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다섯째, 귀한 자가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 말씀은 모두 망하고 보니까 장관이 남의 집 머슴꾼과 별 차이가 없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2억원 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홀쭉해 보였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점원들은 천해 보였는데 망한 다음에 보니까 모두 똑 같아졌다는 말입니다.

여섯째, 죽는 시간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배고프고 매맞고 헐벗고 죽다가 남게 된 귀한 자들이 죽는 시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었더라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걸'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교만하던 사람들이 죽는 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정말 계셨구나.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게 심판하시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가리워질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뇌물을 받는 죄를 범하는 자는 화를 당합니다. 나는 한국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들포도를 맺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열매만 맺어야 하고, 성도는 성령의 열매만 맺어야 합니다.



이처럼 들포도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집 위에 집을 짓고 밭 위에 밭을 사고 잘났다고 하던 사람들이 망하여 모든 것이 없어진 그때가 되면 억울함을 당하여 쫓겨 다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④ 들포도 열매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18, 19절).

이는 거짓말로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여 돈을 모으고 정권을 쥔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죄를 말합니다. 선전을 어찌나 잘하는지 소비자들이 솔깃해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충동구매를 하도록 유인합니다. 거짓말로 끈을 삼아 선거운동을 하여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로 못된 짓을 하여 돈을 모아 이렇게 잘 살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모으면 복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다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있다면 한 번 나를 심판해 보라고 해'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듯 교만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⑤ 들포도 열매는 거꾸로 보는 죄입니다(20절).

모든 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죄를 말합니다. 의로운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고 악한 것은 선하다고 하면서 복받을 일을 하지 않고 망할 일만 골라서 합니다. 이렇게 간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⑥ 들포도 열매는 자신을 전능자처럼 지나치게 믿는 죄입니다(21절).

자신을 전능자처럼 지나치게 믿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내가 시작한 일은 안되는 것이 없어'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면서 자만합니다.

⑦ 들포도 열매는 뇌물을 받는 죄입니다(23절).

뇌물을 받는 죄를 범하는 자는 화를 당합니다. 나는 한국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장을 하나 찍어 주면 될 것인데 '내일 오시오, 모래 오시오' 하다가 두둑한 봉투를 슬쩍 내놓으면 그제서야 결재를 해 주는데, 이것은 강제로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뇌물로 술을 마시고 좋아라고 떠드는 사람은 마침내 들포도를 맺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당합니다.

심판을 당하면 나뭇가지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이 타고, 나뭇가지가 타고, 그루터기가 타고, 땅 속에 숨었던 뿌리까지 타서 티끌처럼 날리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굉장하던 세력가들이 쓰러졌는데 장래할 사람도 없어서 그의 시체가 거리에서 분토와 같이 썩게 됩니다(24절).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들포도를 맺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열매만 맺어야 하고, 성도는 성령의 열매만 맺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만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도적질을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악마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과 짝한 자는 들포도를 맺습니다.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JUDAH (Genesis 49:8)

Prior to Jacob's death, he gathered his twelve sons to give each one their blessing. The blessing was a very important ritual, prophesying each son's future. Preceding Jacob's blessings, the Bible concentrates on Joseph, Jacob's most beloved son. We are told the story of how Joseph, accosted by his brothers, was sold into slavery and taken away from his family for thirteen years. During those years in Egypt he faced many hardships and prevailed, for God was with him. When the great famine struck, it was Joseph who welcomed and cared for his brothers and father in Egypt.

It's natural for us to think that at the time of Jacob's blessings, Joseph would indeed receive the most favorable one. Not only did he suffer and rescue his entire family but his father's heart favored him. Much to our surprise, it is not Joseph but Judah who really receives God's greatest blessing. For God chose Judah as His Kingdom in which the son of David, our Lord Jesus Christ came from.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Jacob's blessing of Judah, his one son, continued four hundred and thirty (430) years later to Moses. Moses blessed the whole tribe of Judah, "Hear, O Lord, the cry of Judah; bring him to his people. With his own hands he defends his cause. Oh, be his help against his foes!" (Deut. 33:7) This illustrates the true and serious nature of Jacob's original blessing and shows us that even through Moses, 'Hear, O Lord, the cry of Judah', the Lord God heard the voice of Judah.

In the opening words of Judah's blessing are three major blessings: praise (your brothers will praise you), triumph (your hand will be on the neck of your enemies) and honor (your father's sons will bow down to you). It's at this point that we begin to wonder, "Why did Judah receive the best blessing?" Our question can be answered by carefully reviewing the story of Joseph.

When we look back into the story of Joseph, we discover Judah's loyalty and sincerity. Prior to Jacob's sons' second return to Egypt for food, Judah confronts his father with extreme boldness. "But Judah said to him, The man warned us solemnly, You will not see my face again unless your brother is with you" (Gen. 43:3). Jacob withheld his youngest son, Benjamin, from the first journey because he and Joseph were the only sons he had with Rachel. Since Joseph was presumed dead, Jacob kept close guard over Benjamin. Everyone was aware of this situation and thus did not wish to upset their father. Unlike all his brothers who remained quiet, Judah spoke up. He was the only one who had the nerve to politely, yet firmly asked to his father for the needed circumstances for their family to survive. Judah's asking to his father was a voice the Lord heard.

Upon reaching Egypt for the third time, "Joseph was still in the house when Judah and his brothers came in, and they threw themselves to the ground before him" (Gen. 44:14). Of all his ten brothers, Judah is mentioned first - "Judah and his brothers". He is the leader and demonstrates his courage through honest repentance before Joseph. Judah even offered himself in replacement for Benjamin, an act the Lord took to heart.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 descendants of Judah are consistently shown as leaders. "The one who brought his offering on the first day was Nahshon son of Amminadab of the tribe of Judah" (Num. 7:12). And when it was time to fight, "The divisions of the camp of Judah went first..." (Num. 10:14). "Who will be the first to go up and fight for us against the Canaanites? The Lord answered, "Judah is to go; I have given the land into their hands" (Judges 1:1b - 2).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유 다 (창 49:8)

야곱이 죽기 전에 그는 그의 열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각각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식으로서 아들 각각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전에 성경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 갔으며, 그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십삼년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영접하여 보살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였을 때, 요셉이 가장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고생을 많이 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것이 사백 삼십년 후에 모세에게 계속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온 유대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신 33:7). 이것은 야곱이 기원한 축복이 참되고 진지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소서'라는 간구를 하게끔 되었고, 또한 이를 주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유다를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이 내포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찬양(네 형제가 너를 찬송할지라), 승리(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존경(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왜 유다가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는가?' 이는 요셉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피게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유다의 충성심과 신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두번째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다는 그의 부친에게 매우 담대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창 43:3). 야곱은 그의 막내아들 베냐민을 첫번째 여행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냐민과 요셉만이 라헬을 통하여 난 아들들이었기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므로 베냐민만큼은 보호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부친을 낙심케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유다는 부친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공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의 부친에게 간청할 수 있던 자는 유다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의 간청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세번째로 도달하였을 때, 성경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러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려니" (창 44:14)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 형제 중 유다가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는 지도자였고 요셉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그의 용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유다는 또한 자기 자신을 베냐민 대신에 감금해 달라고 자원하였는데, 이를 주님께서 가슴 깊이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유다 자손들은 계속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민 7:12). 또한 싸워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수두(제일 선두)로 유다 자손 진기(전영 깃발)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민 10:14).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삿 1:2).

Further evidence of God's blessing of praise, "Judah my scepter" and "The scepter will not depart from Judah" displays God's granting of wisdom to Judah and his people (Ps. 60:7 and Gen. 49:10). For God told Moses, "See, I have chosen Bezalel son of Uri, the son of Hur, of the tribe of Judah, and I have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with skill, ability and knowledge in all kinds of crafts" (Ex. 31:2-3). Here again, we see that God's wisdom, "The Spirit of God", is mentioned first.

The preeminence of Judah and God's blessing of praise is evidently and most beautifully pictured in Psalm 78:67-68, "Then He rejected the tents of Joseph, He did not choose the tribe of Ephraim; but he chose the tribe of Judah, Mount Zion, which He loved."

Judah's blessings of triumph are found in David's win over the lion, the bear and Goliath (1 Samuel 17:34-36). It is also seen in the war between Abijah and Jeroboam, "The men of Israel were subdued on that occasion, and the men of Judah were victorious because they relied on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2 Chron. 13:18).

And the Bible mentions the blessing of honor bestowed upon Judah in several books. "Then one of the elders said to me, 'Do not weep! See,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as triumphed. He is able to open the scroll and its seven seals' (Rev. 5:5). 'But you,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out of you will come a ruler who will be the shepherd of my people Israel' (Mt. 2:6). Amen!

Before we read the asking of Judah to his father, our concentration is focused on Jacob and Joseph. Judah is only mentioned a couple of times and we don't really look closely at him because of that. Jacob's rich blessings of praise, triumph and honor to Judah really happened because God heard his asking to his father. Judah's courage, sincerity, loyalty and honesty opened God's ears to his voice. God heard Judah's prayer and gave him the greatest blessing.

앞서 말씀드린 유다가 받을 세 가지 축복의 내용 중 찬양의 축복에 대한 증거는, "유다는 나의 홀" 또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백성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시 60:7; 창 49:10).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출 31:2-3)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유다의 뛰어난과 하나님께서 찬양의 축복을 주심은 "또 요셉의 장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라고 기록한 시편 78편 67-68절에 가장 명확하고도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유다가 받은 승리의 축복들은 다윗이 사자, 곰,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삼상 17:43). 그것은 또한 아비야와 예로보암간의 전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대하 13:18).

마지막으로 성경은 유다에게 내려진 존경의 축복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계 5:5).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 2:6). 아멘!

유다가 그의 부친에게 한 간청을 읽기 전까지 우리의 관심은 야곱과 요셉에게 집중됩니다. 유다는 단지 몇 차례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유다에게 빌어 주었던 놀라운 찬양, 승리, 존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부친에게 한 간청을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용기, 신실함, 충성심 그리고 솔직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록 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교회에 영광과 존귀를, 한국 형제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유프란 · 페르페투아 부부
(브라질인, 영어에배부, 국제교구)

저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복된 나라에서 당신의 교회를 아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우리 역시 이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형제 자매들께 특별히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개개인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아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것은 좀 힘들것군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이 편지를 통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1일 서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교회, 또 다른 두 교회를 방문했으나 적응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충현교회에서, 우리는 따뜻하게 환영을 받았고, 즉시 가족의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몇몇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만 행여 누군가를 빠뜨릴까 하는 염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배부를 통해 충현교회 전체를 볼 수 있었다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환영의 표시로 우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 여러분과 같은 삶을 통해 주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만난 이 기간을 통해 배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광대함을 찬양합니다. 또한 모든 기쁨과 친교와 필요에 따라 베풀어 주신 위로의 순간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에게 귀중하게 되었고, 저희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안녕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군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달 30일 저희는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 일상의 삶의 또 한부분인 다른 형제들이 있는 브라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사랑스런 나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꼭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믿으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별인사로 하는 노래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사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곡은 달콤하고 단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다정' 이고 또한 '감사' 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네

여러분의 귀중한 삶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네

주신 모든 것, 나눔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네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단에 사랑과 감사의 삶으로 드리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노래였으며 여러분의 삶과 아버지께로의 순종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드러냅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 회락과 기쁨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감

사하고 또 감사드

립니다. 우리가

느낀 모든 것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

리는 기록하시고,

권능있고, 유일하

신 하나님께서 우

리의 교제를 축복

하사 우리가 감사

를 표현하기 위해

서 살게 해 주시

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진중 뒤의 좌측이 유프란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국제교구에서 봉사하면서 각국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전력, 포항제철, 미8군, 영어강사 등 기타 근무하는 처소에서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작별인사, 송별회를 통해서도 뜻깊은 이 아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언어와 혈액이 비록 이 땅에서는 서로가 다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모두가 하나 되어 통한다는 김성관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브라질 부부가 우리를 떠나는 영문 편지와 함께 브라질 국기를 국제교구에 남겼습니다. 이 부부 중 부인은 영어에 능숙치 못해 짧은 스페인어로 주말이면 안부를 물었는데 그때마다 답답함도 있었지만 음성과 눈빛만으로도 성도간에 우정을 나누며 친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부는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분들이기에 더욱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라기는 이분이 포항제철과 재계악이 이루어져 다시 만나 영어에배부, 영어교육부에서 함께 봉사하며 그분 집에서 금요일에배와 국제교구모임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윤석구 집사, 국제교구 간사)



✧ 교도소에서 온 편지 ✧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본교회 진학래 집사가 우연한 기회에 청송교도소의 한 재소자에게 신앙 서적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받아본 재소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편지로 보내온 것이다.
(편집자주)

할렐루야!
집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을 한권 받고 보니 너무나 감격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까 하여 몇자 적사오니 줄필을 용서하십시오.

새벽녘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여명이 밝아 오고, 하얗게 낀 안개가, 멀리 보이는 비봉산 허리자락을 끼고 둥니다.

회색의 하늘이 영영 파란 하늘을 감싸버릴 양으로 굳게, 두껍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서 이저께 받아 놓았던 책을 읽을까 하여, 새벽을 깨워 일어나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께 하루의 무사함을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한 두 시까지 성경공부와 서적을 읽다가 2-3시간 잠을 청하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저의 모습은 언제나 천연덕스럽기만 하답니다.

멀리, 이역만리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뭉개버리고 FBI 수사관에 의해 고국으로 쫓겨난 천하의 죄인이 감히 펜을 잡았습니다.

제가 6년 전 죄인의 몸으로 노스웨스트 항공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널 때, 비행기의 조그만 볼트문틈으로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암울한 시대를 닮았고 저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무척이나 발버둥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못배우고, 못나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저지른 죄이었음을 깨닫고 나서는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며 두번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햇살이 매우 따갑게 내리쬐릴 것 같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햇살이 매우 따갑게 쏘아지지요.

집사님,
병풍처럼 길게 처져 있는 산자락이 오늘따라 더욱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멀리 회쭈영게 보이는 대지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게만 보입니다.

감히 제가 자유, 평화, 사랑, 행복이란 낱말들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회개의 눈물로써 얻은 보상이 아닌가 감히 여겨봅니다.

집사님,
저는 교도소에 와서 잃은 것이 무척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백배, 천배 더 많지요.

아름다운 낱말들을 배웠고, 더욱더 큰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집사님처럼 고마우신 분들이 보내주시는 책들을 한권 한권씩 읽으면서 재생의 꿈을 펼치며 갱생의 등지를 틀고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따라 새들의 목소리가 더욱 아름답게 울려 퍼져 초원을 색칠합니다.

집사님,
우리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지요.

새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희망찬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집사님,
저는 뼈저린 회개의 눈물로 이제 제법 삶의 안정을 찾았지요.

그리고 행복의 문을 열었지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는 문을...

집사님,
교도소에서 행복하다면 위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예수님께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47)”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는 제법 다정다감한 말을 구사할 줄도 안답니다.

이 모두가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집사님,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나는 만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아래 위를
눈처럼 흰 발로 걸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사랑을 나뉘임 자라듯
꽃잎 자라듯
쉽게 생각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넷가 들녘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대는 내 어깨에
주님은
눈처럼 흰 손을 얹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인생을
풀 자라듯
쉽게 생각하고 일러 주셨습니다만

나는
젊고
어리석었기에
지금
눈물에
홍건히 젖어 있습니다.

축시

김성관 당회장을 모시면서

새 성전 헌당한 지 9개 성상 지나면서
당회장 두 분을 애석하게 보내 놓고
일년 반 매어달리며 목자 달라 기도했소.

장자교회 큰 교회라 조건도 까다롭고
주의 목자 많건마는 모실 자는 적은 중에
참된 중 어지신 목자 찾기가 어려웠고.

주보마다 기도제목 참된 목자 달라 하고
모이는 집회마다 눈물어린 회개로써
진실한 목자를 달라 간절히 기도했소.

보수교단 장자교회 할일이 많습니다.
사천여 대소 교회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경륜 위대한 비전 마음껏 펴십시오.

새 세기를 맞이하여 새 당회장 모셨으니
새로운 각오로써 새로운 일 하시도록
새 힘을 담뿍 받으시어 새 출발을 하십시오.

박 철 구(집사, 중동2부 부감)

▼ 지난 8월 21일 김성관 목사 위임식예배에서 위임패를 받는 김성관 목사. 뒤편에서 있는 이가 이귀자 사모이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더 이상의 방황은 끝

정 주 아
(새가족부)

얼 마전 경포대에 다녀왔다. 즐기는 여행이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여행이고 싶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보다 확고한 나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행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섬표가 있으면 마침표의 의미가 배가되듯 말이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왜 이리 도들이 표의 연속인가? 한 치 앞도 모르는 한 나약한 인간이 한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남들보다 좀더 빠른 지름길을 찾기 위해 좌충우돌 헤매고, 그 안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가끔 사주팔자 운운하며 떠돌어 대는 모습도 그렇고... 아무리 발버둥쳐 봐도 우리네 모습 앞에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동경과 두려움뿐이라는 걸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한숨 섞인 담배 한 모금과 술 한잔에 무거운 어깨를 기대보기도 하지만, 어찌서 우리는 결론 아닌 결론만을 남긴 채 힘없이 뒤돌아서서 흐느끼는가? 한 순간 초라함이 가시는 그런 위안은 악순환만을 남긴 채, 우리는 더더욱 절 자리를 잃어만 간다.

하지만 이 해결되지 않는 늪에서의 방향도 마침내 여기서 중지부를 찍는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채,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부터...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끔 주책없는 눈물이 함께한 채 은혜 충만함을 피부로 느껴지면서부터... 아무런 걱정 없고, 초조하지도 않고 결국 편안함을 느낀다. 젓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뚜렷한 불만없이 쫓여가기만 하는 스트레스와 불투명함 속에 담대해질 수 있다.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에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도 동트는 새벽을 맞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취재수첩

유치부에서 성경퀴즈대회 열려

유치부에서는 8월 24일(주일) 성경 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는 평상시에도 어린이들이 성경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양쪽 끝에 두 교사가 O, X, 1, 2 글자의 피켓을 들고 있고 어린이들은 답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서 서는 방법으로 30명의 어린이가 예선을 통과했다. 이 어린이들은 다음 주일 유치부1, 2부 예배 사이 시간에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벌써부터 본선진출자들의 가슴뛰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다.



중등3부의 작은음악회

지난 8월 24일(주일) 중등3부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학생들에게 찬양을 좀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준비된 이번 음악회

는 찬양대원들과 기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한달 전부터 준비하여 발표한 것이었다. 이들의 성실한 준비와 동료, 부모들의 아낌없는 응원에 하나님께서도 함박웃음을 보내셨으리라.



경찰전도회, 서울지방청 제4기동대에서 경찰선교의 밤 열려

경찰전도회(회장 이갑제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에서는 지난 8월 22일(금) 오후 6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 지방청 제4기동대에서 경찰관, 전·의경 1,100명을 대상으로한 '경찰 선교의 밤'을 개최하였다.

1부는 대학생 시심나전도대 및 임마누엘여성중창단의 찬양으로 은혜롭게 드렸으며 2부 예배순서로 진행되었다. '생의 목적' (창 1:26-2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김필수 목사는 불신자들을 위한 결심초청의 시간도 가졌

사진 찍으세요

교회에서는 설립 마흔다섯 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직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직은 단정한 차림으로 제 날짜에 찍어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드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년 6월 22일 ~ 12월 31일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 1997년 9월 7일 : 8교구
1997년 9월 14일 : 9교구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 교구 찍는 일자에 찍지 못한 제직들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의 사진 찍는 시간에 와서 찍기 바랍니다.



다. 이번 행사에서 경찰전도회는 전·의경들을 위하여 티셔츠 1,100벌과 음료를 기증했다. 우리 중헌의 성도들은 쉽지않은 전·의경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도록 기도해야겠다.

교육훈련원 하반기 학생모집

매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교육훈련원의 97년도 하반기 강좌가 9월 7일(주일) 찬양예배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일제히 개강되어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7일까지 교육국(교육관 103호)로 하면 된다.

과정은 (1) 주간 성경공부 (2) 제7기 양육훈련 과정 (3) 제47기 교사양성부 (4) 제17기 찬양대원양성부 (50 제7기 선교연구원 이다. 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

회충약과 피리 그리고 드러나는 영적 전쟁

김 장인 목사님 성역 60주년에 초청 받아 다녀온 것이 마치 꿈 속에서 순식간에 진행된 듯합니다. 너무 귀한 경험과 사랑으로 인해 이번 한국방문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5월 23일 한국을 출발해 수리남으로 돌아오던 중 미국에 들러 약 10일간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희와 떨어져 산 지도 만 6년이 지나 이제 9월이 되고 3이 되는 소영이와 고2가 되는 위영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저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들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못다한 것에 대한 아픔이 저희들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신 부모의 책임을 감당해주시는 형님 내외분과 주변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로 인해 다시 선교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두 딸과 포코노수양관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장래의 공부와 일들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3, 고2가 되면서도 아직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야를 찾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25일 주일에는 시온장로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6월 1일 주일에는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삼일교회와 영생교회의 루디아전도회 헌신예배에서 말

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의 교회들에는 수리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귀향(?)길에서

한국에서 준비해 주신 많은 약들과 선물들로 인해 여러 번 가방을 풀었다가 다시 싸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수리남 세관을 통과시킬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미국 세관도 통과시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이애미공항의 ALM창구에서 기다리다가 수리남에서 사업하시는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희의 짐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수리남까지 보내 주시겠다고 자청하셨습니다. 마이애미에서 하이티를 거쳐 큐라사오에 와서 다시 수리남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중착지인 파라마리보로 향했습니다. 수리남 비행기에 올라 화란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고향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뉴욕에서부터 총 10여 시간의 비행기 여행을 마치고 파라마리보에 도착해 짐을 찾아 나오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직원에게 저희 짐도 함께 통관시키라고 해서 가방 하나 열어 보지 않고 짐에까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지극히 놀라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사업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본인의 계획보다 일찍, 그것도 갑자기 수리남으로 가

도록 하시고는 저희의 짐들을 통관시키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주일

수리남에서는 6월 15일 주일을 국가적으로 아버지주일로 지키므로 8일 주일에 아버지를 모셔오면 선물과 회충약을 주며 혈압도 재주겠다고 했더니 마따교회에 많은 아버지들(12명)과 함께 40여명의 장년, 60여명의 주일학생들이 출석해 부모와 자녀의 의무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전도하고, 선물과 회충약을 나눠 주고 혈압도 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해서 헤이 어스플레이트의 현지인 교회는 정제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며 함께 협력할 협력자가 절실하게 기다려집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충약과 피리

많은 약들과 피리, 볼펜 등 꾸밈하게 준비해 주셔서 볼펜은 6월 8일 주일에 나누어 주었으며 회충약은 아버지날에 두 교회 모두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마따 인디언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며 과일들을 그냥 따먹어서인지 어떤 아이는 복용하고 3일 동안 아주 많은 기생충이 나와 놀라기도 했습니다. 7월 1일 이 나라 노예해방일에 제가 각 가정을 방문하며 안민는 사람들에게 회충약을 나누어 주며 전도했습니다. 또 교회와 제자들이 준비해 준 피리 20개로 7월 3일부터 주일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피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준비해 주신 약들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번씩 제가 마따를 방문해 치료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는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해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의 방편으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남 소식

큰 변화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7월부터 전기요금과 약 300%가 오르고 수도요금도 약 200%가 오르게 되며, 은행이 돈 많은 몇 사람에게 의해 좌우되는 모습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며, 통일교에서 파송한 약 120명의 일본여자들이 축호전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4천여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금을 찾아 수리남 곳곳을 돌아다니므로 집세가 오르고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일하지 않고 폐돈을 벌려는 사고방식에 물들어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5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도 아직 영적 어린 아이 같은 수리남의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마따의 인디언들을 위해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자 영적 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찾아오는 자들과 물질들을 위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이 29일 주일에 11시부터 3시가 넘도록 회의를 함으로 10여명의 장년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의자를 회의에 가져가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교회 건물을 10월부터 유치원으로 사용해 야겠다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추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